

## 발언 1\_ 안나이툰(NUG 한국대표부 특사)

## 발언 2\_ 강인남(해외주민운동연대 대표)

나의 귀한 동지 묘우, 무사한가요? 밥은 잘 챙겨먹고 있지요? 2021년 2월 1일 나조차도 믿을 수 없었던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천고 끝에 쟁취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거품처럼 사라지려고 방울을 터트리던 날, 나는 2009년 한국의 봄이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쪼그려 앉아 서명을 받던 묘우의 검붉은 조끼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에 연대해 주세요' 매주 일요일이면 한남동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수많은 미얀마 노동자들이 들었던 박스 피켓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군부독재 몰아내자' 묘우, 당신들이 들었던 그 몇 글자를 오늘은 우리가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돌고 또 돌았던 발목 시렸던 그 곳에 오늘은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당신들의 싸움이 얼마나 외롭고 절박했는지 당신의 심정을 느껴보려 애쓰니 단 한 마디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의 연대로 행동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묘우와 같은 수많은 미얀마 시민들의 꿈이지 않았던 행동은 2015년 미얀마의 따뜻한 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묘우는 2016년 스스로 난민지위를 포기하고 주저함 없이 미얀마를 선택했습니다. 가끔 미얀마 찻집에서 마주 앉은 묘우는 좀체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군부와 공존하는 새로운 정부의 한계, 외국기업의 무분별한 개발이 만들어 내는 빈곤의 나락, 삶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선배 지도력 부재, 고심하던 낫빛을 읽어내던 날 우리는 꿈을 만들었지요. 10년 이후의 미얀마를 상상하며 청년들을 교육하기로, 88 여성 리더들을 한국의 시민사회와 이어보기로, 그리고 들었던 설렘의 파이팅 술잔은 이제는 서로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그림자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2,725명의 희생 시민, 1,247,200명의 피난 주민, 48,463채의 전소가옥, 101명의 사형선고가 있는 후 나는 묘우를 화면으로 만났습니다. 한국의 차별에 맞서 싸운 수년의 경험과 지혜로 당신이 도시 한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었기에 덤덤한 각오로 묘우를 만났습니다. 적어도 애썼다 한 마디쯤은 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린 멍멍한 가슴만 서로 알아챈 체 글썽글썽한 눈만을 한참을 바라보다 화면을 닫았습니다. 10대의 후배들을 군부에 빼앗기고, 피 불이 같던 동지가 교수대에 목을 내걸던 날, 그 많던 관계들을 스스로 피해 머리를 깎고 4개월을 칩거한 묘우가 산속 깊은 곳으로 다시 갔다고 문자를 보내왔지요,

2022년 9월 2일, “오늘 아무 말도 못했지만 처음으로 밖에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개인의 모든 것은 물론이고, 같이 싸운 동료와 후배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일년 동안 하루도 잠을 못자고 매일이 두려운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활동은 가장 위험하고, 순간순간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밤이되면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조차 군인들이 나에게 총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악몽입니다. 두려워서 피해갈 수도, 숨어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잃은 동료들의 빈자리에 새로운 활동가를 채우는 일, 빼앗긴 물건들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일, 보내져 온 것들을 도시까지 들여오는 일, 도착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배분하는 일, 작전을 세우고 미션을 실행하고, 미션 후 안전하게 빠져나가도록 하는 이 모두의 한 단계 한 단계가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어서 이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얀마 시민들을 지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먼 길을 뛰어야 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새로운 전략을 서서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끝에는 도착지가 있는 것을 잘 알지만, 보이지 않는 이 먼 길을 스스로 지켜가겠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고요하지만 필요하면 투사가 됩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옛날에도 그랬 듯이 지켜봐주십시오. 꼭 이길 것입니다”

묘우 4월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사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정 가운데로 들어가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미얀마의 수많은 당신이 지치지 않도록 행동으로 지지하겠습니다. 무기가 되어 당신의 심장을 겨누는 한국기업의 경제 제재를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미얀마 봄의 혁명이 아시아 봄의 혁명으로 연결되도록 더 멀리 내다보며 즐겁게 이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살아만 주십시오. -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시민불복종 저항 운동 2주년에, 당신의 동지 인남.

### **발언 3\_ 웨노웨 흐닌 쏘(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리더)**

안녕하세요? 행동하는미얀마청년연대 리더 웨노에 입니다. 오늘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맞서 일어난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운동인 봄의 혁명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불법적, 야만적으로 권력을 강탈한 군부에 맞서 싸우는 그 2년 동안 우리 저항시민 쪽에서는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1월 30일 기준) 사망자 2901명, 체포자 17,525명, 구금자 13,719명에 이르고 사형 집행된 분들과 사형을

기다리는 분이 143 명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끝나지 않는 악몽같은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시민 저항운동은 지금도 미얀마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막강한 화력은 미얀마 봄의 혁명을 조금 지연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는 미얀마 시민들의 마음만큼은 꺾을 수 없었고 저항 운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저항운동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 월 23 일, 무력으로 국가권력을 손아귀에 쥔 군사위원회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올 연말에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군부가 주도해 만든 2008 헌법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 유효기간은 2 년이고 국방안보회의(NDS)는 6 개월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21 년 2 월 1 일, 불법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주축이 된 군사위원회가 치르는 선거는 2008 헌법 자체의 무효를 외치는 우리 시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군부는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할 것이고 형식적이지만 선거를 통해 합법적 정부를 만들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오늘 이 순간까지도 미얀마 전역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우리 동지들과~~ 같은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저항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웁시다. 군부독재 종식되는 그날까지! 미얀마연방 민주주의가 오는 그날까지 ! 제 인사의 마지막은 미얀마 시인의 시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반짝이는 별 하나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늙은 어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설마 늙은 어머니의 정신이 나간 게 아니겠지요?  
라고 했더니  
수많은 이들의 유골을 왕좌에 깔고 앉으면  
왕이나 된 줄 아는 그 놈보다  
난 정신이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 늙은 어머니  
왜 눈물 대신 미소를 지으셨는지요?

라고 했더니  
하늘을 향해 가만히 손가락을 가르킨다  
늙은 어머니 손가락 그 끝에  
대낮임에도 별 하나가 반짝이고 있다  
아~!!!

시인 칸와네인 /모마카 잡지 2022.11.18 일

#### **발언 4\_ 전은경(참여연대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참여연대 전은경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2 년입니다. 얼마전 볼커 튀르크 유엔최고인권대표가 밝혔듯이 미얀마는 깊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 인권의 전면적인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교전 중 민간인을 보호해야 하는 명백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간인들이 표적화되고, 무차별적인 포격과 공습, 초법적인 처형, 고문, 방화 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경제는 붕괴되었고, 미얀마 전체인구 중 40%가 빈곤선 이하에 놓여있습니다. 미얀마인들의 삶은 군부의 폭정으로 피폐해졌고, 군부는 최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쿠데타 2 년은 시민저항 2 년이도 합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군부 통치하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끈질긴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자유와 평화, 평등과 정의,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봄의 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얀마 시민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민사회도 미얀마의 봄을 기다리며 지난 2 년간 미얀마 시민들과 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얀마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한국에 거주하는 많은 미얀마분들과 한국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저항과 혁명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추운 겨울, 19 개월밖에 안된 어린 아이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활동하는 엄마품에 안겨 집회와 행진을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간절함에 한국도 응답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시민들을 학살하고, 무차별적인 폭격과 체포와 구금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들의 행태에 방관하는 국가들이, 이들의 자금줄이 되어주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전쟁 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질러왔던 미얀마 군에 대해 국제사회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고 처벌하지 않아서 오늘의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각국 기업이 미얀마 군 소유 기업들과 합작 등의 형식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미얀마 군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어 미얀마 군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시민사회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얀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포스코 C&C 는 말 뿐이 아니라 MEHL 과 실질적으로 합작관계를 종료할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꼼수를 부려 불법으로 군함을 수출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대한 철저한 수사과 처벌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유엔미얀마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기업에 대한 표적제재, 즉 유럽연합처럼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에 대한 경제제재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미얀마의 현지 상황을 고려해 모든 미얀마 국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않고, 현 인도적 특별체류조치를 '미등록 체류'인 경우에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시민사회도 미얀마의 봄을 위해, 봄의 혁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발언 5\_ 윤지현(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오늘로부터 2년전인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군부가 지원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패배하자 확실한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키고 즉시 정치적 반대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미얀마 군부의 횡포에 대응했지만, 군부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대를 저지르는 등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군부와 경찰은 정치인, 활동가, 의료인, 언론인 등을 광범위하게 체포하고 시위대에 발포할 뿐만 아니라 강제 실종, 고문, 강간 및 성폭력, 심각한 자유 박탈 및 기타 비인간적 행위를 자행하며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열악한 심문소와 교도소에서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미얀마 내에서 1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항민이 되었고, 17,000 명이상이 비인도적 환경에 구금되었으며, 최소 100 명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780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해 교육을 박탈당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군부에 대한 반란 진압”이라는 맥락하에 평화로운 시위대, 운동가 및 기타 민간인을 포함하여

2,700 명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제트기와 전투기를 이용하며 민간인에 대한 공습 또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은 놀랍도록 부족하고 부적절합니다. 미얀마의 국민을 보호하고 미얀마 군이 인권 탄압을 당장 멈추도록 긴급한 글로벌 행동이 필요합니다. 유엔과 전 세계 정부, 기업은 미얀마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해야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모든 무기, 군수품, 기타 군사 및 보안 장비, 훈련 및 추가 형태의 지원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무기 금수 조치를 미얀마에 부과해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은 항공연료가 공습에 사용되지 못하게 막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때 까지 미얀마에 대한 항공 연료의 환승, 환적 및 중개를 포함한 직간접적인 공급, 판매, 또는 이전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MEHL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와 파트너십을 맺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스코는 2021 년 4 월 MEHL 의 지분을 매각하고 합작관계를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2 년이 지난 지금까지 포스코가 언약을 이행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포스코는 면피만을 모색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약속한 바를 지키고 기업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전역의 민간인들은 자신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며 놀라운 용기와 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구금 시설과 교도소 내에서 발생하는 고문의 위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지만 미얀마 시민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장려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군대의 범죄를 기록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역시 미얀마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유린을 알리고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촉구하며,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포스코가 군부와의 협력사업들을 단절하고 인권침해에 연루되거나 기여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압력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미얀마의 인권상황이 더 이상 묵인되거나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 기업, 시민 모두가 미얀마인들의 목소리에 목소리를 더해야 할 때입니다.